



올 시즌 프로야구 신인왕 레이스에서는 ‘중고 신인’이 대세다. KT 위즈의 거포 외야수 안현민과 LG 트윈스의 5선발 송승기가 신인왕 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4라운드 전체 38순위로 KT 지명을 받은 안현민은 입단 첫째 곧바로 군 입대를 택했다. 상무에 가지 못한 안현민은 2022년 8월

육군 제21사단 보병으로 입대해 취사병으로 1년6개월 간 군 생활을 했다. 잠시 야구와 멀어졌지만, 군 복무 기간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근육량을 늘렸다. 지난해 2월 전역한 안현민은 KT 복귀 첫 해이자 1군 데뷔 첫 해였던 2024시즌 16경기에서 29타석만 소화해 신인왕 자격을 유지했다. 입단 5년 이내이면서 1군에서 60타석 이하 소화한 타자는 신인왕 후

‘중고 신인’이 대세 KT 안현민·LG 송승기 뜨거운 신인왕 경쟁

안현민, 41경기서 13홈런… 평균 비거리 130m ‘괴력’
LG 5선발 송승기, 13경기 7승 평균자책점 2.65 활약

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올 시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안현민은 4월30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첫 선발 기회를 잡았고, 이후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41경기에서 타율 0.349 13홈런 43타점 32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1.128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5월에 나선 27경기에서 타율 0.333, 9홈런을 날린 안현민은 6월 들어 한층 뜨거운 타격감을 뽐내고 있다. 6월 이후 12경기에서 타율이 0.409에 달하고, 홈런도 4방을 몰아쳤다. 안현민은 홈런 평균 비거리 130m로 리그 1위를 달린다. 5월10일 수원 롯데 자이언츠전에서는 나균안을 상대로 145m짜리 초대형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다. 가공할만한 파워를 자랑하면서도 0.350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할 정도로 준수한 콘택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리그 3위에 해당

하는 타율이다. 투수 쪽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좌완 송승기다.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9라운드 전체 87순위로 지명된 송승기는 입단 5년차에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군 무대에서 8경기에 등판해 9%이닝을 던진 것이 전부인 송승기도 입단 5년 이내이면서 30이닝 이하를 소화해 신인왕 자격이 있다. 2023년 5월 상무에 입대한 송승기는 퓨처스(2군)리그에서 뛰며 기량을 갈고 닦았다. 2024년에는 상무에서 20경기 11승 4패 평균자책점 2.41의 성적을 거두며 가능성을 보였다.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염경엽 LG 감독에 눈도장을 찍은 송승기는 5선발로 시즌을 시작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량을 과시 중이다. 13경기에서 7승 4패 평균자책점 2.65를 작성했다. 15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4⅓이닝 5실점(4자책점)으로 흔들리기 전



까지는 평균자책점 2.30으로 국내 선발 투수 중 1위를 달리기도 했다. 송승기는 직구 구속이 시속 140km 중반대지만, 공의 분당회전수(RPM)가 높아 볼끝의 힘이 좋다. 여기에 수직 움직임이 좋아 타자들이 상대하기 까다롭다는 평가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는 정현우(키움 히어로즈), 정우주(한화 이글스), 배찬승(삼성 라이온즈) 등 걸출한 고졸 루키들이 대

거 등장에 기대를 모았다. 고졸 신인들이 1군 무대에서 아직 부침을 겪는 가운데 ‘중고 신인’인 안현민과 송승기가 신인왕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다. 만약 안현민이 신인왕에 오른다면 2018년 강백호(KT) 이후 7년 만에 타자 신인왕이 탄생하게 된다. 수상의 영광이 송승기에게 돌아간다면 LG는 2019년 정우영 이후 6년 만에 신인왕을 배출한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커뮤니티	쾌적한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른 커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원림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CG (의한화/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이적설’ 이강인·김민재, 클럽월드컵 이후 거취 결정될까

이강인·김민재 모두 팀 내 입지 불안… 지난 시즌 중반부터 이적설 돌고 있어

‘코리안리거’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과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의 거취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17일(한국 시간) 현재 미국 전역에서 클럽월드컵이 한창이다. 클럽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국가대항전인 월드컵처럼 4년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32개 팀이 격돌하는 방식으로 격상됐다.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유럽 주요 리그의 2024~2025시즌은 끝났지만, 클럽월드컵에 참가한 구단 소속 선수들은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과 김민재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각각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PSG),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클럽월드컵 출전 명단에 포함돼 미국으로 향했다. 클럽월드컵 B조에서 경쟁하고 있는 PSG는 지난 1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첫 경기에서 4-0 완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 이강인은 후반 27분 파비안 루이스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고, 약 25분 동안 뛰었다. 팀이 3-0으로 앞선 후반 52분에는 페닐티킥으로 썬기골을 터트리기도 했다. PSG는 오는 20일 보타포구(브라질), 24일 시애틀 사운더스(미국)를 차례로 상대한다. 이날 김민재가 속한 뮌헨은 오슬랜드 시티(뉴질랜드)와의 C조 첫 경기에서 10-0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뮌헨은 21일 보카 주니어스(아르헨티나), 25일 벤페카(포르투갈)를 만난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 결정했다. 교체 출전이 예상되는 이강인과 달리, 독일 매체 ‘키커’에 따르면 아킬레스건 부상 이슈가 있는 김민재는 7월까지 출전하지 않을 전망이다. 몸 상태는 좋아졌지만, 현재로서는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클럽월드컵 출전 가능성은 다르지만,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공통분모는 계속되고 있다. 이강인은 2024~2025시즌 중반부터 팀 내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시즌 막바지에는 이적설에 휩싸였다. 최근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 공격 보강을 노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나폴리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초상권 문제 등만 해결되면 프랑스를 떠나 이탈리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중이다. 김민재도 시즌 중반 이후 이적설이 돌았다. 그는 2024~2025시즌 뮌헨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1년 만에 리그 우승을 탈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